

활옷의 상징성을 반영한 현대혼례복 디자인

홍 선 옥

한양여자대학 의상과 교수

Study on Wedding Dress Designs that Reflect the Symbolism of *Hwalot*

Sun-Ok Hong

Prof., Dept. of Fashion Design, Hanyang Women's College
(2008. 6. 19. 접수; 2008. 7. 26. 수정; 2008. 7. 31. 채택)

Abstract

People have used the manner of expression "clothing" to find out and to symbolize the styles that suits one's roles, behaviors or attitudes. Moreover, the symbolic meaning of clothing is important as it reflects the culture of a time period as well as the life style of each classes of society.

In the aspect in which clothing is critical data to re-examine a time period as to trace history, clothing is significant for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ime periods, and by focusing on women's wedding dress, a costume worn for one of the most essential ceremonies in one's life, this article studies how trends of each period have been symbolized through clothing.

Thus, this study aims to set a foundation to understand the cultural features of a time period through the wedding ceremony. The article inquires about the hwalot to also understand its meaning during the period of its existence, and develops designs for modern wedding dresses for women.

I. The wedding dress of women expressed the following meanings by using shapes, colors and patterns of the hwalot.

- 1) The formative art of hwalot is the ultimate beauty.
- 2) The wedding dress of women emphasized aesthetics.
- 3) The symbols praying for harmony between red and indigo, or the union of yin and yang indicates that marriage had been considered as a precious ceremony - an important matter of life.
- 4) The meaning of good auspice such as health, longevity, immortality, good luck and stability had been frequently used since people sought for new and eternal life.
- 5) The symbols of wealth and fame have been frequently used by those pursuing a wealthy life.
- 6) Marriage was considered as a union of families, and not a union of two individuals.

II. This article presents two types of modern wedding dresses.

Key Words: Hwalot(활옷), Modern Wedding Dress(현대 혼례복), Symbolism(상징성)

Corresponding author ; Sun-Ok Hong

Tel. +82-2-2290-2540, Fax. +82-41-540-8301

E-mail : oakhong1@naver.com

I. 서론

사람들은 자신의 역할이나 행동, 태도 등에 적합한 스타일을 찾아내고 이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의복이라는 표현방식을 사용하여 왔다. 또한 의복은 어느 계층에서나 그들의 생활상은 물론 그 시대의 문화를 반영하는 거울로 상징적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 혼례복은 가장 화려하고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혼례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출발선이며 가업을 전승하고 인간 생활의 근본으로 통과 의례 중 가장 경사스럽고 행복한 의식절차로 예(禮)중에서 첫째로 하였다.

전통적으로 전승되어 내려오던 한국 고유의 전통혼례는 고려를 거쳐 조선왕조 숙종 때 이재가 편찬한 「사례편람」에 의한 혼례로 유교적 관습과 지침에 의해 거행되어졌었고, 개화기 이후부터 기독교의 전파로 인하여 서구양식의 혼례가 유입되어 우리나라의 혼례의식은 점차적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였고 혼례복이 이원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의복이 지나간 역사의 흔적을 더듬어 그 시대를 재조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인문지대사인 혼례식에 사용되는 여자 혼례복을 중심으로 고찰하여, 그 시대 사조가 어떻게 의복에 상징화되었는가 조사하는 것은 그 시대의 문화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자혼례복으로 사용되었던 활옷에 대해 고찰하여 활옷의 상징성에 대해 알아보아 그 시대의 혼례에 대한 의식과 혼례가 갖는 의미 등 그 시대의 문화특성을 이해하는데 의의를 두고, 이를 기초로 우리문화를 계승한다는 측면에서 현대 혼례복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1) 활옷에 관련된 문헌과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여 역사적 배경을 조사하고 2) 활옷의 형태와 구조, 색채와 문양에 대해 조사한다. 3) 활옷에 나타난 미적특징으로 표현된 형태, 구조, 색채, 문양의 상징성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하고 4) 이를 기초로 하여

현대 혼례복식 문화의 새로운 창출을 위해 현대 혼례복의 디자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활옷의 역사적 배경

조선시대 혼례복으로 실제로는 염의·활옷·원삼·당의 등이 함께 공존하였다¹⁾. 오늘날의 활옷의 형태는 염의에서 장삼을 거쳐 비롯되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활옷은 공주나 왕비의 대례복으로 대군왕자처(大君王子處)의 혼례 시 착용되었고 가례 시 비모(妃母), 시녀(侍女), 유모(乳母)에게 예복으로 착용되던 것인데 일반 서민들의 상향성 심리가 고조되면서 후기에 이르러서는 일생에 한번인 혼례 당일에 착용이 허용되었다.

활옷은 당의와 더불어 신라 때부터 입어왔던 것으로 전한다. 당으로부터 관복제도를 들여와 문·무백관의 제도를 따르고, 문무왕4년에 여자 의복제도도 개혁하기에 이르렀다²⁾. 그 후 「삼국사기」 색복조에 보면 ‘송나라 사신이 연회에 초빙되어 와서 창녀(娼女)들이 입고 있는 활수의(闊袖衣)에 색사대(色絲帶)와 대군(大郡)을 보고 三代(隋,唐,宋)의 복식이 다 있음은 의외라고 하면서 감탄하였다’고 하였는데³⁾, 이는 통일신라 시대에 당으로부터 들어와 고려시대에도 착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 인종 원년(1122년)에 「고려도경」에 의하면 ‘왕비와 왕의 부인은 홍색을 입고 그림과 수를 가하되 관리나 서민의 처는 감히 이를 쓰지 못 한다’고 하였는데⁴⁾ 이것은 그림과 수를 더한 홍의(紅衣)가 활옷의 고계가 아닌가 짐작할 수 있다.

「거가잡복고」에 ‘지금 풍속에 딸이 시집가려 할 때 하는 복식은 …… 홍장삼이란 것이 있는데 붉은 비단을 바탕으로 두루 연꽃으로 가득히 수놓아 그 제도는 비록 화려하고 곱지만 그 넓이와 흩어진 머리로 한 몸을 덮을 뿐이다’⁵⁾라는 내용으로 보아서 홍장삼이 지금의 활옷임을 알 수 있으며, 조선시대 신부는 혼례복으로 홍색

옷을 입었음을 알 수 있다.

「오주연문장전산고」에서 ‘중국의 「일지록」에 의하면 양관과 홍포는 부인이 봉함을 받지 못하면 입지 못하는 것인데 요즈음의 부유한 사람은 모두 다 착용하고 있다. 또 어떤 이는 백화포를 입는데 어느 때 누가 만든 것인가 알 수 없다’라는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⁶⁾.

이처럼 위 두 책의 내용을 참조하면 백화포는 ‘어꽃을 수놓은 홍장삼’과 같은 종류로 볼 수 있으며 붉은색 비단에 수를 놓은 활옷의 특징과도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례편람」에는 세속에서 신부가 홍장삼인 활옷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학자들은 홍장삼이 예서에 없다는 이유를 들면서 신부에게는 소의(宵衣)⁷⁾의 밑단에서 붉은 선을 두른 염의(襖衣)⁸⁾를 입도록 권하였다⁹⁾는 기록으로 보아서 활옷의 근본은 염의로 무문(無紋)의 검소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염의의 염(襖)자가 ‘활옷 襖’이니 사례편람이 편찬된 숙종 때에는 홍장삼과 함께 사대부가에서 염의 즉 활옷이 착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¹⁰⁾.

이상의 기록에서 보면 활옷의 어원이나 출처 등이 확실하지 않다. 중국의 제도에서 나온 것이라 하여 화의(華衣)라 하며, 꽃부너의 특징 때문에 화의(花衣)가 되어 발음상 활옷이 된 것이 아닐까 짐작하고 있고¹¹⁾ 또한 발음이 「활옷」이 되는 가운데 다시 한자화하여 음이 같은 「활의」, 「활의」가 된 것이 아닌가한다¹²⁾. 그 외 활옷의 명칭과 표현이 백화포, 홍의, 장삼, 홍장삼, 염의 등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렇듯 활옷은 당에서 전개된 복식이기 때문에 오랜 역사를 통해 그 명칭과 제도 면에서 약간의 논의가 지금까지도 제기되기도 한다.

2. 활옷의 형태와 구조

현존하는 활옷 유물에는 공주의 활옷과 반가의 활옷 몇 점이 남아 있는데 그것의 문양이나 구성법이 약간씩 다르다. 본고에서는 다른 점에 대한 서술이 주요쟁점이 아니므로 궁중용과 민가용을 전반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조사하고자 한다.

- 앞길은 뒷길보다 약 20cm 짧아 앞뒷길의 차

이가 있고, 앞을 여미는 형태가 아닌 직령으로 깃을 달지 않으며 뒷고대만 박고 흰색의 동정만 달았다. 동정아래에는 작은 고름을 달아 앞이 벌어지지 않도록 맬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고대 밑에 반원모양의 백지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오염을 막기 위한 것으로 추측된다.

- 뒷길은 앞길보다 길며, 등술기를 가르지 않았다. 우리의 옷 구조 중에 등술기를 바느질하지 않은 옷은 활옷뿐인데 이는 뒷길에 수를 놓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뒷길의 도련 중앙에 작은 고리가 달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고리는 옷의 흐름을 반듯하게 하기 위해 잡아주기 위한 것으로 짐작된다.

- 옆선은 진동 밑에서부터 바로 형성된다. 앞길과 뒷길이 갈라져 그대로 일직선을 이루고 있다.

- 소매는 직선배래로 소매통이 넓게 만들어져 있으며, 소매 끝에는 노란색, 다홍색, 남색 순의 색동과 이어서 약 20cm정도의 흰색 비단 한삼을 덧대어 연결하였다. 이러한 한삼부분에는 화려하게 수를 놓았으며 안감을 대어 준 것이 특징이다.

- 착장 시 하의속옷으로는 다리속곳, 속속곳, 바지, 너른바지, 단속곳, 무지기, 대습치마 등을 입고, 상의 속옷으로는 (모시)속적삼과 속저고리를 입어야 했다.

이상의 속옷을 갖추어 입은 후에 다홍색 민치마 혹은 청색 스란(대란)치마를 입고 곁에 다홍색 대란치마와 노란색(또는 연두색) 삼희장저고리를 입었고 그 위에 활옷을 입었다. 활옷을 입은 다음에는 봉미를 앞 중앙에서 뒤로 매고, 고름에는 삼작노리개를 달았다¹³⁾.

이상으로 활옷의 길이에 대비되는 소매의 길이와 넓은 허리폭과의 균형은 여성미를 한층 나타냈고, 소매 폭과 그 구성의 대비가 보여주는 활옷 특유의 구성미는 아름다움의 극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구성상 형태의 균형과 조화는 활옷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특색으로써 입는 사람의 고결한 품성이 여실하게 드러난다고 여겨진다.

3. 활옷의 색채와 문양

1) 색채

활옷의 기본색상은 걸감이 다홍색이고 안감은 남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동양의 기본 색채관인 오덕생성의 사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일상복에 비해 화려하고 아름다운 색채를 사용하는 것은 그만큼 혼례의 의미를 크게 두고 있으며 인륜의 대사로 여겨 상대함을 표현하는 것이라 하겠다.

홍색은 길한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잡귀의 접근을 막는 주술적인 의미가 있으며 양(陽)의 색으로 생명의 색, 생기의 색으로 인식되어 있어 혼례 때 중심색으로 사용하여 왔다. 남색은 오행 중에는 목(木)에, 방위로는 동(東)에, 계절로는 봄에 해당하며 생명을 상징하는 색으로 이용된다. 남녀를 남색, 홍색으로 하여 혼례식에서는 청실홍실이 결혼을 뜻하는 것으로 일반화 되어 음양의 관념으로 청(靑)은 남(男)으로 홍(紅)은 여(女)를 의미하여 사용하였다.

이처럼 활옷의 걸과 안으로 쓰였던 다홍색과 남색의 배색은 오행상으로 목생화(木生火)하여 이성지합을 뜻하여 음과 양이 하나가 되어 화합과 안정을 이룬다는 의미와 음인 여자가 양의 색인 홍색을 겹으로 입는 것 역시 음과 양의 조화를 상징¹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활옷의 소매 끝에는 색동과 흰색 한삼이 달려 있는데 색동을 포함한 색채는 우주간에 운행하는 원기소로 만물이 주성분이 된다는 오원소인데 이를 오행이라 하고 금(金), 목(木), 수(水), 화(火), 토(土)가 백(白), 청(靑), 흑(黑), 적(赤), 황(黃)으로 색채에 의미를 둔다. 오색의 화합을 통하여 오행을 상생시키고자 하는 유감주술을 창출하는 색동을 소매 부분에 넣어 화려하고 즐거우며 행복을 기원하는 혼례복식으로서의 의미를 주었다. 보통 색동은 좋은날에 쓰이는 색이므로 어두운 흑색은 제외 된다¹⁵⁾.

흰색 한삼이 색동간의 시각적인 연결을 자연스럽게 해준다는 미적인 의미 외에 흰색은 풍요로운 결실의 의미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란색과 흰색의 배색은 음양으로는 중성인 노란색과 음인 흰색이 만나서 조화를 이루는 것

이니 상대적으로 노란색이 양이 되고 흰색은 음이 되어 화합을 이루는 신성함의 의미와 부정을 쫓는 의미에서 이 두색을 상징적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¹⁶⁾.

또한 활옷 속에 입는 다홍치마에 노랑삼회장 저고리는 모든 것이 흙에서 성장된다는 원리를 생(生)과 성(成)에 바탕을 둔다는 의미로서 미혼 여성의 예복색깔로 정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¹⁷⁾.

2) 문양

활옷의 특징은 옷 전체에 화려한 수(繡)문양에 있으며 그 수문양이 혼례복으로서 의미와 화려함을 더하여 준다. 지금까지 활옷 유물 중 가장 오래된 복온공주 활옷등 궁중용 활옷과 반가용 활옷에는 다양한 종류의 문양이 수놓여져 있는데 대체적으로 연화, 목단, 봉황, 수과문(물결), 원앙, 호접, 십장생(해, 산, 수, 돌, 구름, 소나무, 거북, 학, 사슴, 지초), 동자문, 길상문자문 등이 흔히 사용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주로 사용된 문양을 중심으로 그 의미를 조사해보고 이를 통해서 혼례복인 활옷이 상징하고 있는 의미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① 연화문

활옷의 뒷길 하단에 활짝 핀 연꽃과 연실, 연잎을 수놓았다. 보통 연꽃의 의미를 불교사상과 연결시키기도 하지만 활옷의 연꽃은 인연을 상징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싶다¹⁸⁾. 또한 연꽃은 꽃과 열매가 동시에 성장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아들을 연이어 얻고자 하는 의미를 담은 것이고, 연꽃의 연(蓮)자가 연이어서 태어난다는 연생귀자(蓮生貴子)의 뜻으로 영생과 장수를 상징한다¹⁹⁾.

② 목단문

활옷의 앞길 하단과 어깨에 주로 수 놓여졌다. 모란은 활옷에서 빠지지 않는 무늬로 호화스런 인상 때문에 부귀화로 일컬어 부유한 재산과 높은 지위를 가리키며, 연꽃이나 나비등과 함께 남녀의 애정, 인연 등을 상징한다. 그리고 본초학적으로 볼 때 부인과의 여러 질환에 약효

가 있으며 이경우도 ‘생식’, ‘다산’에서 파생된 ‘애정의 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²⁰⁾.

③ 봉황문

활옷의 앞길 하단과 양 소매에 주로 수 놓여 졌다. 상상의 새인 봉황은 희망과 기원을 상징한다. 암·수 두 마리를 좌·우 대칭으로 배치하여 행복의 의미를 강조하였다²¹⁾. 봉황은 덕(德), 의(義), 인(仁), 신(信)을 상징하므로 신부의 부덕과 인격을 통해 영화를 추구하고자 했던 염원으로 여겨진다.

④ 호접문

호접문은 나비모양의 문양으로 화려한 모란꽃과 함께 등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나비는 여름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부부애를 상징하는 길상문 중 하나이다²²⁾. 나비 역시 남녀의 사랑을 뜻하는 이성지합의 자연스런 인간심리를 표현한 것으로 여겨진다.

⑤ 십장생문

가장 널리 쓰인 한국적인 무늬로 거북, 사슴, 학, 소나무, 대나무, 불로초, 바위, 물, 구름, 해 등의 10가지 대표적인 장생(長生) 상징물을 한데 묶어 조화시킨 복합문양이다. 10종류의 복합 무늬가 총 등장하는 것이지만 무늬 중에는 그것을 부분부분 따로 표현하기도 하여 ‘오래 산다’는 장수의 염원을 의미한다²³⁾.

⑥ 길상어문

활옷의 등 좌우와 동정 양옆이나 뒷고대에 주로 수놓여져 있으며, 대체로 쓰인 어구가 이성지합(二姓之合), 백복지원(百福之源), 수여산(壽如山), 부여해(富如海), 부귀다남(富貴多男)의 글자들이 장식적으로 도안화하여 사용되었다. 남녀가 화합하여 오래살고, 복 받고, 부유하게 되기를 염원하는 상징으로 볼 수 있다.

⑦ 보문(寶文)

보문이란 동양 문화권에서 다양한 길상을 의미하는 문양을 말한다. 복온공주의 활옷에는 15종의 보문이 장식되어 있는데 서로 원만하게 지

내야 함을 강조한 「운보문」, 「나보문」, 「옥석보문」이 있고, 자손들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호로문」이 있으며, 수명장수를 뜻하는 「상보문」이 있다. 또한 음(陰)을 뜻하는 장식으로서 「여보문」이 있으며, 남성을 뜻하는 것으로 「장보문」이 있고 음양이 조합된 결과로 생성하는 것을 뜻하는 「주장신보문」이 있다. 모든 보배를 의미하는 보문으로서 「뇌공석보문」이 시수되어 있다.

이처럼 궁중의 공주 활옷은 온갖 길상한 것은 상징적으로 모두 자수하여 품격과 탈속의 높은 경지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활옷 전체를 가득 채우는 하나하나의 문양은 혼인을 축복하고 다산, 다남 등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염원을 하고, 자녀들의 풍성함을 기원하는 것을 상징하며, 권세, 장수, 부귀, 화합 등 온갖 상징의 문양을 자수하여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와 같이 의례 복식 중에서도 가장 많은 상징과 의미를 담은 활옷의 문양은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에 담겨 있는 의식이나 삶으로서 시대성이나 사회성이 반영되는 문화적 소산이라고 여겨진다.

III. 결 론

1) 본 연구에서는 전통 혼례복 가운데 활옷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활옷의 형태, 구조, 색채, 문양 등을 통해 전통 혼례복인 활옷은 다음의 의미가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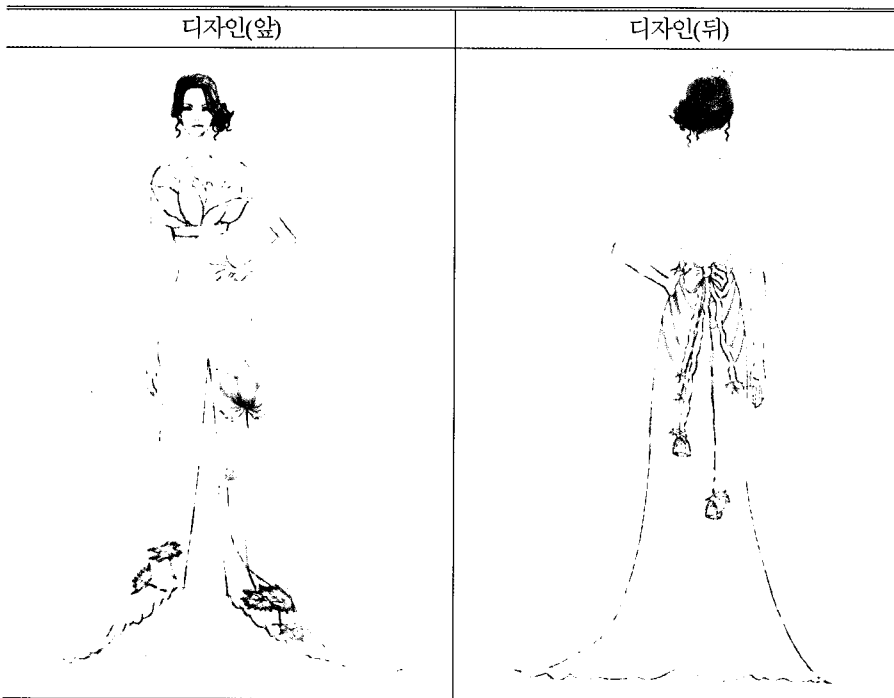
① 활옷의 구성미는 아름다움의 최상이다.

앞 길이와 뒷길이 차이, 소매 길이와 넓은 허리폭과의 균형, 소매 폭과 전체구성과의 비례, 직선과 곡선, 사선의 조화, 깃과 작은 고름 등의 구성에서 활옷의 아름다움이 더한층 강조되었다. 이는 혼례에 의미를 중요시 하였으므로 최고로 아름답게 만든 것이라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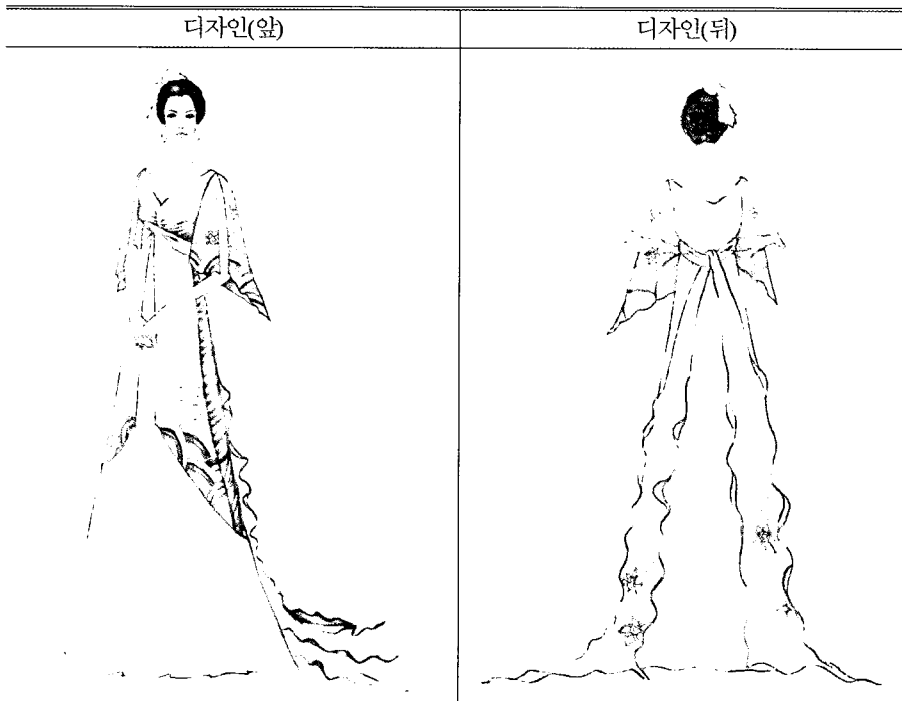
② 심미성을 강조하였다.

옷 전체에 놓은 화려한 수(繡)와 소매 부분에 넣은 색동의 아름다움과 흰색 한삼과의 조화로 활옷의 미적 조형성을 부각시켰다. 이는 가장

작품디자인 I



작품디자인 II



경사스럽고 행복한 혼례를 기원하는 의미라고 생각된다.

③ 음양의 조화를 추구하였다.

겉감의 홍색과 안감의 남색과의 색채결합이나 읍과 양의 화합을 의미하는 상징과 남녀의 애정, 인연, 행복, 다산, 생식들의 길상적인 의미를 많이 표현한 것으로 보아 이성지합의 자연스런 인간심리를 소중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

④ 건강, 장수, 행운, 불변 등의 길상적인 의미를 많이 사용하여 새로운 삶과 인간의 영원을 추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⑤ 권세, 부귀, 화합의 상징을 많이 사용하여 풍성한 삶을 추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⑥ 다산, 다남(多男)의 상징을 많이 사용하였다. 이는 혼례를 가문의 결합차원으로 여겼으며 조상숭배와 자손의 번성을 중요시하는 문화적 배경을 짐작할 수 있다.

2) 우리 전통혼례복인 활옷에 나타난 상징적 의미를 도출해낸 앞의 결론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현대 혼례복의 디자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① 활옷의 상징성을 반영한 현대 혼례복 디자인 작품 I

i) 작품 I 은 활옷의 형태와 구조적 상징성을 응용한 디자인으로서 앞길이와 뒷길이의 차이를 두어 구성미를 강조하였고 허리는 대대처럼 허리끈을 길게 늘어뜨려 우아함을 강조하면서 뒷면을 화려하게 하였으며 가슴과 허리의 균형과 조화로운 구성미로 아름다움을 강조하였다.

ii) 또한 활옷의 색채와 문양의 상징성을 응용하여 영생, 장수, 부귀, 사랑 등을 상징하는 연꽃, 연밥, 나비 등을 수놓아 이성지합의 자연스런 인간심리와 혼례의식을 강조하는 현대 혼례복 디자인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② 활옷의 상징성을 반영한 현대 혼례복 디자인 작품 II

i) 작품 II 는 활옷의 형태와 구조적 상징성을 응용하여 활옷을 덧입은 것처럼 앞면의 치마길이를 차이있게 구성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앞길이보다 뒷길이를 길게하고, 소매길이 넓이와 허리 폭과의 비례, 허리의 곡선과 소매길이의 사선과의 조화 등의 구성으로 아름다움을 강조하였다.

ii) 또한 활옷의 색채와 문양의 상징성을 응용한 디자인으로서 화려하고 즐거우며 행복한 기원을 상징하는 색동을 사용하여 미적 조형성을 부각시켰으며, 부귀, 높은 지위, 애정 등을 상징하는 모란꽃, 수파문을 사용하여 혼례의식을 강조하는 현대 혼례복 디자인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참 고 문 헌

- 1) 조효순 (1989). *한국복식 풍속사연구*. 서울: 일지사, p.295.
- 2) 손경자 (1979). 활옷의 형태와 문양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지 창간호*, p.49.
- 3) 김부식, 이병희譯註 (1986). *삼국사기(下)*. 서울: 을유문화사, p.168.
- 4) 정경희 (2006). 한국의 조형미가 표현된 혼례복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4.
- 5) 박규수 (1865). 조효순역. *거가잡복고 제2권 내복제*. 서울: 석실, p.159.
- 6) 신혜성 (2004). 한국과 중국의 전통혼례 예복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115.
- 7) 소의: 검은색의 제복(祭服)으로 주나라 때 입던 옷.
- 8) 염의: 검은색상의 소의에 붉은 선 장식을 한 신부용 옷으로 실과 무가 달려 있고 소매 넓은 장옷과 유사함.
- 9) 국사편찬위원회 편 (2006). *옷차림과 치장의 변천*. 서울: 두산동아, p.199.
- 10) 유희경 (1981). *한국복식사*. 서울: 교문사, p.328.
- 11) 문화재관리국 (1981). *조선시대 궁중복식*. p.95.
- 12) 전해숙, 김숙경 (2000). 조선 후기 활옷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생활과학 논문집 제8호*, p.210.
- 13) 조효순 (1989). *Op. cit.*, pp.296~297.
- 14) 전해숙, 김숙경 (2002). 조선 후기 여자 혼례복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0(2)*, p.166.
- 15) 김영자(1992). *한국의 복식미*. 서울: 민음사. p.131.

- 16) 임현정, 조오순 (2003). 활옷에 나타난 색상과 문양의 상징성에 관한 고찰. *창원대학교 생활과학연구지* 7(1), pp.151~163.
- 17) 손경자 (1979). Op. cit., p.51.
- 18) 국사편찬위원회 편 (2006). Op. cit., p.198.
- 19) 전해숙, 김숙경 (2002). Op. cit., p.168.
- 20) 국사편찬위원회 편 (2006). Op. cit., p.198.
- 21) 이필연 (2001). 전통혼례 폐백시의 복식에 대한 교육적 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p.18.
- 22) 김영숙 (1998). *한국복식문화사전*. 서울: 미술문화, p.407.
- 23) Ibid., p.269.
- 24) 이상은 (1992). *조선왕조 복식사론*. 서울: 일지사, pp.161~163.